## AI비상대책상황실 운영 재개

###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현황 파악, 농가 점검사항 전달

지난 12.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고병원성AI 발생이 끊이질 않으면서 본회는 AI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을 재개했다. 현재(23.12.19일 기준) 산란계 11건, 육용종계 2건, 육용오리 6건, 종오리 1건 등 총 16건 발생으로 집계되었다. 본회는 정부로부터 해당 지역내 이동중지명령 및 발생·검출 세부내용에 대해 실시간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방역수칙 준수 및 AI증상 확인될 경우 방역당국이나 협회로 즉시 신고바란다고 전했다. AI비상대책상황실은 고병원성 AI가 끝나는 기간까지 가동한다.

* 고병원성AI 의심축 신고 전화 : 1588-4060, 9060

---

## AI 영상회의 개최

### 방역국장 주재 매주 정례 영상회의 개최

고병원성AI 발생이 전남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축산국장 주재로 매주 가금단체장들과 정례회의를 개최, 대책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지난 15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남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산란계와 오리농가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방역국장의 전달사항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발생하는 산란계 농가들은 방역 미흡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방역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AI를 막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SNS나 협회지 또는 양계속보를 통해 AI 실시간 정보를 전달, AI차단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을 전달하였다.

---

## 하반기 축산물 PLS제도 설명회

### 축산단체 대상 설명회 참석

본회는 지난 5일 오송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축산단체 대상 하반기 축산물 PLS제도 설명회 참석, 설

명회를 듣고 의견을 개진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현재와 같이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mg/kg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본회는 회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PL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가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 이물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창립 29주년 기념 토론회, 오세진 회장 참석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 이물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회 오세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박용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식품 중 이물 관리 정책방향', 이준구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식품 이물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마미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 최진희 대진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식품 이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크워크 회장은 "벌써 창립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소비자 권익보호 등 소비자 단체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 주제 '식품 이물'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다. 소비자는 물론, 식품산업계, 정부 등이 소비자 주도적인 안전 식품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故 김교석 전 부회장(종계부화분과위원장) 별세

▲故 김교석 전 부회장

본회 부회장을 역임한 故 김교석(우화농장) 전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이 향년 93세를 일기로 지난 11월 24일 별세하였다. 김교석 부회장은 13대, 14대(1993년~1999년)에 걸쳐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이끌며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